

1. 무대 위 / 낮 / 실내

insert - 배우들이 발성연습을 하고 있다.

insert - 배우들이 컵차기를 하고 있다.

insert - 배우들이 둥글게 원을 만들어서 앉아있다.

종혁 - 이번 공연에서 배우들한테 내가 가장 바라는 점은 말하듯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. 좋은 배우는 말하듯 연기하는 배우가 가장 좋은 배우라고 생각합니다. 다들 그 점 명심해주고 연기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배우들 - 네.

2. 소극장 / 낮 / 실내

무대 위엔 나무가 심어져 있고 무대 가운데엔 연극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지윤 서 있다. 핀 조명을 받고 있는 지윤.

지윤 - 훨훨 나는 새를 보면 나는 참 부러워.
날개를 다친 나는 날수가 없는데.
훨훨 날아다니며 온 세상을 구경하고 싶은 내 마음을 너는 알까?
나는 오늘도 지쳐서 울기만 하고 있을 뿐인데.
상처뿐인 내 맘은 고향만 가고 있는데.
언제쯤 나는 날 수가 있을까.
너 같이 날아다니면서 나도 세상을 구경할 수 있을까?
비행을 시작하고 싶어.
나도 너처럼 퍼덕이며 온 세상을 날아다니고 싶어.
더 넓은 세상을 훨훨 날아다니고 싶어.
마리아, 마리아.

라고 부르면 무대 뒤 문에서 하녀 복을 입은 지연이 지윤 옆으로 다가온다.

지연 - 네 주인님, 부르셨나요, 주인님…….

지윤 - 마리아 물 좀 가져다 줄래?

지연 - 네 알겠습니다. 얼음 좀 넣어서 갔다 드릴까요.

지윤 - 마리아 너는 내가 이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.

지연 - 저는 주인님께서 연기를 하실 때 모습을 보면 한명의 천사가 노래를 부르는 거 같아요. 온세상의 빛이 주인님만 비쳐주는 거 같은 느낌을 받아요.

지윤 - 그러니? 호호호호 마리아 고마워.

지연 - 언제든지 필요하신거 있으면 절 불러주세요. 저는 주인님 옆에서 연기를 하는 모습만 봐도 행복해요.

컷 소리가 난다.

종혁 - 지연아, 조금 더 말하듯 대사를 해봐. 그리고 복식호흡으로 발성을 좀 하고. 니 대사가 무대 끝에서는 잘 안들려. 다시 한 번 해볼까?

지연 - 네 알겠습니다.

종혁 - 다시 해볼게요.

지윤 - 훨훨 나는 새를 보면 나는 참 부러워.
날개를 다친 나는 날수가 없는데.
훨훨 날아다니며 온 세상을 구경하고 싶은 내 마음을 너는 알까?
나는 오늘도 지쳐서 울기만 하고 있을 뿐인데.
상처뿐인 내 맘은 고향만 가고 있는데.
언제쯤 나는 날 수가 있을까.
너 같이 날아다니면서 나도 세상을 구경할 수 있을까?
비행을 시작하고 싶어.
나도 너처럼 퍼덕이며 온 세상을 날아다니고 싶어.
더 넓은 세상을 훨훨 날아다니고 싶어.
마리아, 마리아.

라고 부르면 무대 뒤 문에서 하녀 복을 입은 지연이 지윤 옆으로 다가온다.

지연 - 네 주인님, 부르셨나요, 주인님…….

지윤 - 마리아 물 좀 가져다 줄래?

지연 - 네 알겠습니다. 얼음 좀 넣어서 갖다 드릴까요.

지윤 - 고맙지 그러면.

종혁의 얼굴이 보인다.

3. 소극장 / 낮 / 실내

극장 객석에 배우들이 앉아있다.

앞에는 연출가 종혁이 앉아있다.

종혁 - 오늘도 다들 수고하셨고 공연 날까지 조금만 더 힘냅시다.
다들 연습시간 늦지말고요.

배우들이 “네” 하고 대답한다.

종혁 - 이번 연극제에서 우리 목표는 대상입니다. 알겠죠?

배우들 스텝들- 네.

종혁 - 자 그럼 다들 집에가서 푹 쉬고. 지윤이는 발성이 조금 부족하니까 남아서
연습 좀 더 하고 갈게요.

지윤 - 알겠습니다.

배우들이 일어나서 극장 밖으로 나간다.

4. 소극장 / 낮 / 실내

지연이 발성을 하고 있다.

지연 - 마리아, 마리아. 네 주인님 부르셨나요?

종혁 - 숨을 더 들이쉬고 복식호흡으로 발성을 해봐. 그럼 더 잘들 린다니까.

종혁이 지연의 배를 만지고 있다.

지연 - 마리아. 마리아. 네 주인님 부르셨어요?

종혁 - 조금만 더 숨을 들어마시고.

지연 - 마리아, 마리아, 네 주인님 부르셨나요?

종혁 - 그래 목소리가 더 좋아지잖아. 이렇게 말하듯 대사를 하고 발성을 들이 마쉬면서
해야 된다고.

지연 - 알겠습니다.

종혁이 지연의 엉덩이를 툭툭친다.

종혁이 다시 지연의 배를 만진다.

종혁 - 다시 한 번 해볼까?

종혁이 지연의 배를 문지르며 눈을 감고 살짝 흥분하는 듯한 호흡...
지연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도 얼굴이 불쾌하다.

지연 - 저 연출님 터치는 안해주시면 안될까요?

종혁 - (눈을 뜨며) 아이 내가 배를 만져보야지 니가 숨을 들이 쉬는지 알지.

지연 - 아 네 알겠습니다.

종혁 - 다시 해봐.

지연 - 마리아 마리아 네 주인님 부르셨나요.

종혁 - 근데 지연아 너 같은 여자친구를 둔 남자는 진짜 좋겠다.

지연 - 네? 무슨 말씀이세요?

종혁 - 너랑 섹스하면 진짜 행복할 거 같아.

지연 - 네?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.

종혁 - 아냐..아냐.. 농담농담~(그런데 지연을 쳐다보는 눈빛은 농담이 아니다)

종혁이 지연 배를 다시 만진다.

지연이 발성연습을 계속한다.

지연 - 마리아. 마리아. 네. 주인님 부르셨나요.

5. 밤 / 집 / 실외

지연이 카톡을 보고 있다.

종혁의 카톡이 와 있다.

종혁 - 지연아 오늘 고생 많았어. 점점 연기 실력이 느는 거 같다.

우리 사이도 가까워 지는 거 같고. 앞으로도 더욱 친하게 지내자. 하트표시.

지연이 머리를 붙잡고 괴로워 한다.

6. 분장실 / 낮 / 실내

지연과 지윤이 화장을 하고 있다.

지윤 - 그래도 연출이 너를 많이 아끼나 보다. 남아서 항상 너 연기도 신경써주고.

지연 - 아. 네.

지윤 - 열심히 해. 연출이 너 좋게 보고 있어.

지연 - 네. 근데 선배님 고민이 있는데요.

지윤 - 응 말해봐.

지연 - 아. 아닙니다.

지윤 - 뭔데 편하게 말해봐. 고민있으면 같이 나눠야지.

지연 - 아닙니다. 괜찮습니다.

지윤 - 그래? 언제든 편하게 얘기 해둬 돼. 알겠지.

지연 - 네.

7. 무대 위 / 낮 / 실내

무대 위엔 나무가 심어져 있고 무대 가운데엔 연극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지윤 서 있다.
핀 조명을 받고 있는 지윤.

지윤 - 훨훨 나는 새를 보면 나는 참 부러워.
날개를 다친 나는 날수가 없는데.
훨훨 날아다니며 온 세상을 구경하고 싶은 내 마음을 너는 알까?
나는 오늘도 지쳐서 울기만 하고 있을 뿐인데.
상처뿐인 내 맘은 고향만 가고 있는데.
언제쯤 나는 날 수가 있을까.
너 같이 날아다니면서 나도 세상을 구경할 수 있을까?
비행을 시작하고 싶어.
나도 너처럼 퍼덕이며 온 세상을 날아다니고 싶어.
더 넓은 세상을 훨훨 날아다니고 싶어.

마리아, 마리아.

라고 부르면 무대 뒤 문에서 하녀 복을 입은 지연이 지윤 옆으로 다가온다.

지연 - 네 주인님, 부르셨나요, 주인님…….

지윤 - 마리아 물 좀 가져다 줄래?

지연 - 네 알겠습니다. 얼음 좀 넣어서 갔다 드릴까요.

지윤 - 마리아 너는 내가 이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.

지연 - 저는 주인님께서 연기를 하실 때 모습을 보면 한명의 천사가 노래를 부르는 거 같아요. 온세상의 빛이 주인님만 비쳐주는 거 같은 느낌을 받아요.

지윤 - 그러니? 호호호호 마리아 고마워.

지연 - 언제든지 필요하신거 있으면 절 불러주세요. 저는 주인님 옆에서 연기를 하는 모습만 봐도 행복해요.

종혁 - 자 좋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 그리고 지연이 연기가 점점 좋아지네. 발성도 좋아지고. 오늘도 끝나고 남아서 연습 더 하고 가고.

지연 - 네. 알겠습니다.

지연이 아무말 없이 서 있다.

시무룩한 지연.

지윤은 분장실로 간다.

지연도 분장실로 간다.

객석의 배우들은 문 밖으로 나간다.

8. 소극장 / 실내 / 밤

텅 빈 소극장, 지연이 무대 위에 서 있다.

지연이 독백을 하고 있다.

종혁 - 지연아 너 주인공이 하는 독백 한번 해볼래?

지연 - 네?

종혁 - 훨훨 나는 새는 그거 한 번 해봐.

지연 - 네. 훨훨 나는 새를 보면 나는 참 부러워.
날개를 다친 나는 날수가 없는데.
훨훨 날아다니며 온 세상을 구경하고 싶은 내 마음을 너는 알까?
나는 오늘도 지쳐서 울기만 하고 있을 뿐인데.
상처뿐인 내 맘은 고퍼만 가고 있는데.
언제쯤 나는 날 수가 있을까.
너 같이 날아다니면서 나도 세상을 구경할 수 있을까?
비행을 시작하고 싶어.
나도 너처럼 퍼덕이며 온 세상을 날아다니고 싶어.
더 넓은 세상을 훨훨 날아다니고 싶어.

종혁 - 어 좋다.

지연 - 감사합니다

종혁 - 사실 내가 이 연극을 각색해서 어린 배우로 주인공을 한명 더 뽑으려고 하거든.
연극제가 끝나면 이 공연을 장기공연으로 올릴 거라서.
젊은 관객들을 끌어들이기 그 때 배우가 필요하거든.

지연 - 아! 정말요?

종혁 - 그래. 근데 나는 다른 사람을 뽑는 것 보다 지연이 너를 주인공 시키고 싶어.

지연 - 진짜요? 저야 시켜만 주시면 정말 감사하죠. 주인공은 누구나 꿈꾸는 거잖아요.

종혁 - 그래? 그러면 너가 한 번 할래?

지연 - 물론이죠. 정말 감사합니다.

.
종혁이 무대 위로 올라간다.
무대 위로 올라가서 바지를 벗는 종혁.
셔츠도 벗는 종혁.
지연이 얼음창처럼 몸이 굳는다.
당황하는 지연.

지연 - 뭐 하시는 거세요? 연출님.

종혁 - 근데 조건이 있어. 나 너만 보면 발기가 돼. 너 가 여자로 느껴져.
내 예술적 욕망이 널 원하고 있어.
내가 너 주인공 시켜줄테니까 나랑 한 번 만 하자.

종혁이 지연을 안는다.
지연이 종혁을 뿌리친다.

지연 - 이러지 마세요. 연출님.

종혁 - 주인공 하고 싶지 않아? 주인공 시켜줄게. 주인공 시켜 줄 테니 나랑 한번만 하자.
내가 너를 연극계 스타로 만들어줄게. 이 무대 위에서 우리 한몸이 되는 거야.

다시 지연을 안는 종혁.
지연이 종혁을 뿌리친다.
종혁을 밀치고 극장 밖으로 달려가는 지연.

9. 소극장 밖 / 밤 / 실외

지연이 공황장애가 온 듯 숨을 헐떡거린다.
안정이 안되는지 가슴을 툭툭 치는 지연.

10 집 / 낮 / 실외

침대 위 지연이 앉아있다.

지연의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.

지연아 너 연습 안가?

지연 - 연습?

엄마 -그래.

지연 - 엄마 나 연극 안 할래.

엄마 - 왜? 무슨 일 있었어?

지연 - 연극 하고 싶지가 않아.

엄마 - 왜 그래. 그래도 연습은 빠지면 안되지.

지연 - 아무 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.

엄마가 지연을 보다 나간다.
지연이 일어난다.

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는 지연.

11. 소극장 / 낮 / 실외

지연 소극장 계단을 내려간다.

다시 계단을 올라가는 지연.

지연 망설이다가 다시 계단을 내려간다.

계단을 내려가서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가는 지연. .

12 소극장 / 실내 / 낮

지윤이 무대 위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객석에는 종혁이 앉아있다.

계속 지연을 쳐다보는 종혁.

지연 종혁 근처에 다가서자 종혁에게 꾸벅 인사를 한다.

지연 - 늦어서 죄송합니다.

종혁 - 가, 나가.

지연 종혁의 나가라는 소리에 순간 얼음장처럼 굳어진다.

종혁 - (점점 더 화가 나서) 나가라고.

지연 - 죄송합니다.

종혁 - 듣기 싫으니까 나가라고. 너 내가 얘기했잖아.
연습시간 절대 늦지 말라고.

지연 - 죄송합니다! 다시는 늦지 않겠습니다.

종혁 - 됐고! 나가라고.

야, 너 같은 애들은 태도라도 좋아야지. 태도도 안 좋으면 내가 너를 왜 데리고 있어야 되냐?

니 가 나한테 뭘 해주는 게 있다고. 나가.

지연 - 죄송합니다.

종혁 - 됐어 ,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.

너는 앞으로 공연에서 빠질 거니까 더 이상 무대에 서지 마.
무대에 설 자격이 없어.

지윤과 지연 표정이 전부 굳어진다

지연 순간 서러움의 눈물이 몰려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.

얼굴이 시뻘개 지며 똑똑 눈물을 흘리는 지연.

지연 - 꼭 이렇게 까지 해야 되냐! 내가 너 너랑 안 잤다고 지금 나한테
이러는 거야. 왜 내가 너 같은 새끼 하고 자야 되는데.
그깟 주인공 시켜준다고 그러고 한번 자자고 그러면 내가 잘 줄 알았냐.
망상은 너 혼자해. 그리고 니가 나 만질 때마다 얼마나 더러웠는 줄 알아

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. 개새끼야.
내가 너 경찰에 신고할거야. 경찰에 신고해서 너 법적처벌 받게 할거야.
기다리고 있어 이 시발 대머리새끼야.

라고 소리를 뱉 지르고 지연 소극장 문 쪽으로 걸어간다.

종혁 얼굴이 시뻘개 진다.

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종혁.

종혁 - 뭐, 시발 대머리 새끼, 경찰해 신고해. 야? 너 뭐라 그랬어! 야, 너 일로 와봐,
일로 와봐.

지연이 뒤돌아 종혁을 본다.

지연 - 두 번 다시 보지 말자. 더러운 새끼야.

지연 극장 문을 박차고 나간다.

13. 소극장 앞/ 실외 / 낮

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지연.

계단을 걸어 올라가 극장 밖에 서서 분노를 가라앉힌다.

그래도 서러움이 밀려오는지 억지로 눈물을 참으려 하지만 닭 똥 같은 눈물을 계속 흘리는
지연. 옆으로 지윤이 다가온다.

지연 - 선배님 왜 이렇게 세상이 더러워요.
왜 이렇게 우리 여배우들은 연기하려면 더러운 일을 겪어야 되는거예요.
왜 배역을 얻으려면 남자들한테 자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?

지윤 - 정말로 종혁이가 너한테 자자고 그랬어?

지연 - 선배님 지금 제가 거짓말 했다고 의심하시는 거예요?

지윤 - 아니 한번더 확인하는 거요. 이 일은 그냥 넘어 가서는 안되는 거잖아.

지연 - 진짜로 그랬어요? 진짜로요. 제 앞에서 옷 다 벗고 저 안으면서
자자고 그랬어요.

지윤 - 정말 미안하다. 내가 일찍 눈치챌어야 했는데.

지연 - 선배님 저는 더 이상 연극 안할거예요. 죄송합니다.

지윤 - 그래 너무 미안해. 너무 미안 해.

지윤이 지연을 안아준다.

지연은 길을 걸어간다.

지윤은 극장안으로 들어간다.

14. 극장 / 낮 / 실내

극장안 종혁이 앉아있고 지윤이 들어온다.

지윤이 종혁 곁으로 가서 앉는다.

배우들은 없다.

종혁 - 누나! 진짜 경찰에 신고한데?

지윤 - 그래.

종혁 - 어떻게 하지?

지윤 - 어떻게 하긴. 너 감옥에 가야지.

종혁 - 내가 뭘 잘못했다고. 감옥을 가.

지윤 - 넌 니가 잘못된 걸 모르니?

종혁 - 아니 주연 시켜주고 한 번 자자자고 하는게 뭐가 잘못 된 거야.

다들 그렇게 해주는 게 관습이잖아. 누나도 나랑 자취가지고 내가 주연 시켜주는 거
아니야. 근데 이 씨발련이 생각하니까 졸라 열받네.

사람들 다 있는데서 다 까발리고. 아이 씨발.

지윤이 종혁의 뺨을 때린다.

지윤 - 미친새끼. 넌 인간이 덜됐어. 넌 연극하지 마. 이 연극 때려 쳐. 나도 그만 둘 거니까.

더러운 새끼.

종혁 - 왜 그래 누나. 공연은 올려야지.

지윤 - 누나? 더러운 입으로 그 이름 부르지도 마.

지윤이 무대 뒤로 들어간다.

종혁 똥하니 앉아있다.

15. 파출소 / 낮 / 실외

지연이 파출소 앞을 서성거린다.

들어갈까 망설이다가 다시 길을 걷어가는 지연.

16 연습실 / 낮 / 실외

지연이 춤을 추고 있다.

춤을 추고 지연이 연습실 한쪽에 앉는다.

지연에게 전화가 온다.

지연의 심장이 두근거린다.

지연 - 왜 전화 하셨어요.

종혁 -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. 한번만 만나자.

지연 - 만나기 싫습니다. 더 이상은요.

종혁 - 제발 만나자. 내가 무릎꿇고 용서 구할게. 다시 같이 공연하자.

지연 - 싫습니다.

종혁 - 제발 제발 한번만 만나줘.

지연 - 알겠습니다. 내일 뵈요.

17. 공원 / 낮 / 실외

공원 나란히 지연과 종혁 앉아있다.

지연 - 왜 보자고 하신 거예요?

종혁 - 지연이 너도 보고 싶고 사과도 하고 싶어서.
지연아 정말 미안해. 내가 잘 못했어. 용서해줘라.

지연 - 용서고 뭐고 이제 연출님과 인연 이어가고 싶지 않습니다.

종혁 - 화 풀어. 지연아.

지연 - 가겠습니다. 연출님 만나니까 다시 트라우마가 도집니다.

지연이 일어난다.

종혁도 일어난다.

종혁이 지연을 때리기 시작한다.

종혁 - 이 시발련아 내가 사과하는데 받아줘야지. 너 때문에 공연도 못올리고 시발련아
다 망했어. 그렇게 한번 주는게 어려웠냐? 그때 내가 강간이라도 해서 너 먹었어야
됐는데 졸라 후회된다. 야이 좆같은 년아 너는 두 번 다시 연극판에 발 못들일
줄 알아.

종혁이 지연을 내 던진다.

그리고 돌아서 길을 걸어가는 종혁.

지연이 일어나서 의자에 앉는다.

의자에 앉아서 웃기 시작한다.

지연 곁으로 한 남자가 다가온다.

지연 - 녹화해 뒀지.

남자가 고개를 끄덕인다.

핸드폰을 건네는 남자.

지연이 영상을 본다.

일어나서 길을 걸어가는 지연.

18. 파출소 / 낮 / 실외

지연이 파출소 안으로 들어간다.

끝